語間境界(словораздел)에 의한 리듬 연구
— Ф. И. Тютчев의 약강4보격(4-стопный ямб)을 중심으로*

박 소 연**

I. ‘어간경계 리듬’1) 연구사

А. Белый 가 ‘운율(метр)’과 ‘리듬(ритм)’을 분리하여 리듬을 “‘운율’로부터의 일탈에 있어서의 균제(симметрия)”2)로 규정한 이래, 많은 시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 좀더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 시도해 왔다.3) 현재까지의 정의들 중 이

---

* 이 논문은 최근의 과학적 시학연구방법을 도입하여 Тютчев의 리듬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. 우선 М. Л. Гаспаров와 П. А. Руднев의 이론시학적인 원칙에 바탕을 두고, 이 원칙에 대한 최근의 수정, 보완 — 대표적으로 М. И. Шапир와 С. Е. Ляпин — 을 수용하였으며, А. Белый , С. П. Бобров, Б. В. Томашевский 시대부터 이미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귀납-통계학적인 시학연구방식에 의거하였고, 시형식의 ‘내용성(содержательность)’ 이론(С. П. Бобров, С. М. Бонди)을 항상 고려하였다.

**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.

1) ‘словораздел’은 Б. Томашевский 의 용어로, 시행에서 단어사이의 경계를 가리키는데, 동일 개념을 С. Бобров는 ‘слор’라 축약하여 지칭하기도 했다(см.: А. Квятковский (1966) *Поэ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,* М., с. [illegible]